

온달전 재고찰 - 약용식물로서 느릅나무

김영완, 이종숙, 박정환,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Reconsideration of the Story of Ondal - Elm as a Korean Herbal Medicine

Kim Young-Wan, Lee Jong-Suk, Park Jeong-Hwan, Lee Sang-Hun*

Acupuncture, Moxibustion & Meridian Research Group,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bstract

Although the contents of folk stories are fictitious in nature, it nonetheless reflects the social phenomenon and historical facts at the time. In this study, the Story of Ondal will be interpreted through the elm appearing in the "Samguksagi", and examined the examples of application of elm as a Korean herbal medicine used for the purpose of relief famine and as medicinal purpose in relation to the social circumstances of the time through the fragmentary historical observable facts in the Story of Ondal.

Keywords: Samguksagi, Elm, Story of Ondal, Medicinal herbs, Folk remedies

서론

설화의 내용이 허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속에는 설화가 구성될 당시의 사회적 현상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¹⁾

고려시대 이전의 설화의 내용이 기록된 역사서로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수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후대의 관념 또는 실제의 사실에서 윤색되었을 것으로 설화를 통한 역사 및 전통의학의 사용에 대한 연구에 난점이 될 것이다.

설화의 화소로 등장하는 약용식물 대부분은 오랜기간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효능을 기술하고 있다. 온달전에 나오는 느릅나무 역시 고대사회에서 오랜 경험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Correspondence: 이상훈(Lee Sang-Hun). 한국한의학연구원(Acupuncture, Moxibustion & Meridian Research Group,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el: 042-868-9461 Fax: 042-869-2735 E-mail: ezhani@kiom.re.kr

· Received 2013-09-07, accepted 2013-09-23.

한방에서 느릅나무는 성질이 평하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데 주로 쓰이고 장과 위의 열사를 없애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온달에 관한 내용은 『삼국사기』 권45 열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설화적인 내용과 대략적이거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삼국사기』 온달전에 등장하는 느릅나무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론

온달은 6세기 고구려의 사회변동을 나타내는 상징적 인물이다. 온달전에는 평강공주와 온달이 처음 만나게 되는 계기가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산에서 캐서 내려오는 장면이다. 옛 문헌에서는 남녀간의 연정을 가지는 장소로 ‘느릅나무’가 자주 등장하곤 한다. 온달전에서도 이러한 문학적 모티프가 대략적이거나 반영되었을 것이다.

실제 이 시기에 느릅나무는 주로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면,

- ① 대당총관 설인귀가 임윤법사를 시켜 신라왕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중략... 일조(一朝)에 크게 군사를 일으켜 수륙 양면으로 싸우게 되니, 이 때 새외(塞外)의 초목은 꽃이 지고 유성[榆星: 榆關의 느릅열매]은 잎이 돋았습니다.²⁾

위의 기사속에서 느릅나무 열매를 지칭하고 있는 유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사의 의미상으로 유성은 유관(榆關)·유새(榆塞)로서 ‘변방의 요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북성(河北省) 임유현(臨榆縣)의 동문인 산해관을 일컫는다. 즉 중국의 변경지대에는 느릅나무를 심었기 때문에³⁾ ‘유성’으로 기술된 느릅나무는 변방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위의 사료의 내용으로 유추하자면 이 시기 느릅나무는 중국·만주 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중부 이북지역에서⁴⁾ 주로 자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온달전을 통해서 느릅나무가 사용된 양상을 보면,

- ② 온달은 고구려 평원왕 때 사람이다. 얼굴이 파리하여 우습게 생겼지만 마음씨는 좋았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항상 밥을 빌어다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떨어진 옷과 헤어진 신으로 시정간(市井間)에 왕래하니, 그 때 사람들이 지목하기를 바보 온달이라 하였다. ...중략... 공주는 보물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에 매고 궁궐을 나와 혼자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 온달의 집을 물어 그 집에 이르렀다. 맹인 노모가 있음을 보고 앞으로 가까이 가서 절하고 그 아들이 있는 곳을 물었다. ...중략... ‘내 자식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산으로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간지 오래인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소’ 하였다. 공주가 그 집에서 나와 걸어서 산 밑에 이르러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지고 오는 것을 보고, 공주가 속에 품은 바를 말하니.²⁾

사료 ①에서 '유성'을 변방지대로 본다면, 위의 사료 ②에 기술된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오는 산을 비추어 볼 때 온달이 살고 있는 곳은 고구려 수도인 평양지역이 아닌 한반도를 벗어난 지방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당시 느릅나무의 사용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타나고 있는데 ㉠ 계절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지역구분, ㉡ 수레나 집의 건축용 자재, ㉢ 껍질을 활용한 구황식품이자 약용식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의 경우 사료 ①의 경우며, ㉢의 경우는 사료 ②에 해당된다. 그중에서 사료 ②의 경우는 가난한 온달의 집안을 설화적 비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주로 온달을 중심으로 한 사회상을 다루었을 뿐 온달의 모친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단지 평강공주가 온달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중간 매개적 인물로 묘사했을 따름이다.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면 온달의 모친은 맹인으로 기술되어있다. 이 시기 맹인에 관해서 기록된 사서가 전무하기 때문에 맹인의 역할이나 생활상을 알 수가 없다. 온달이 중앙정계에서 밀려난 지역 세력임을 생각해 볼 때, 온달의 모친역시 어떠한 귀족집안 출신으로 간주할 수 있고, 태생적인 맹인은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도 후천적인 병을 얻어 시력에 이상이 생긴 것인데, 온달전의 첫 머리에서 말하듯이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한 영양부족이었거나 손상 혹은 기타 약물 부작용 등에 의한 결과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온달이 정계에서 밀려난 지배세력임을 감안할 때 고구려의 정치적 세력다툼에서 밀려난 현실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생긴 위염, 식도염 등의 질병이 발병하여 치료 목적으로 인근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느릅나무껍질을 달여서 복용했을 가능성 또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³⁾ 물론 느릅나무껍질을 치료적 목적 외에도 온달전의 내용 그대로 구황작물로 온달의 모친이 장기간 복용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느릅나무과 식물은 문헌상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어 독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⁵⁾ 그러나 최근 보고된 민간요법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면 민간요법으로 위궤양, 식도염의 치료 목적으로 느릅나무 껍질을 구입하여 수시로 달여 마신후 눈이 가렵고, 침침해진 사례가 보고된바 있으며,⁶⁾ 또한 느릅나무 달인 물을 복용한 후 급성 간염 및 급성신부전을 경험한 보고 내용도 있다⁷⁾.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치료적 목적이나 혹은 구황작물로 복용한 느릅나무로 인해 눈에 이상이 발생하여 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가능성 또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간허(肝虛)하면 희미하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눈은 간이 밖으로 드러나는 곳'⁸⁾으로 기술한 것 또한 이러한 설과 일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삼국사기』에 기술된 온달전에 관한 연구는 사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문 출신이 상승하여 공주와 결혼하였던 것을 설화화한 것으로, 6세기의 시대적 배경 하에서 가능한 것⁹⁾으로 일반적으로 연구되어왔다. 이것은 온달을 중심으로 당시 사회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환경과 생활문화의 한 측면으로 볼 때 민간에서 대중적으로 구황 및 약용으로 사용되어졌다고 여겨지는 느릅나무를 중심으로 한 접근을 통해서도 이 시기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민간요법은 오랜기간에 걸쳐 구전과 경험을 통해서 전승어 내려온 것으로¹⁰⁾ 고대사회에서도 치료과

정에서 생긴 부작용 현상이 나타났을 수 있으며, 온달전에 등장하는 ‘맹인노모’의 사례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온달전에 나와 있는 민간요법 사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 또한 하나의 설화의 재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요법의 전통지식의 문화적·시대적 전승과정을 고려할 때도 그 의미가 부여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 발표문(2013.08.30.)을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한국한의학연구원 민간요법 발굴·보존 및 DB구축을 통한 지식 자원화(K13210)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참고문헌

1. 임기환. 온달·서동 설화와 6세기 사회. 역사비평. 1993;24:123.
2. 김부식. 삼국사기. 1145.
3. 김덕호, 박상표. 삼국사기에서 살펴본 한약. 한약역사 총서. 2012:233-5.
4. 이은방, 김옥경, 정춘식, 정기화. 느릅나무 수피 엑스가 흰쥐의 위염, 위궤양 및 발부종에 미치는 영향. 약학회지. 1995;39(6):671.
5. 윤성민, 이흥기, 천종호, 최인근, 이대호, 한지연, 이진수. 폐암 환자에서 느릅나무 달인 물을 복용한 후 발생한 급성 독성 간염 및 신부전 2예. 대한내과학회지. 2003;65(3):830.
6. 최선미. 민간요법 활용기반 구축사업 2012년도 연차보고서.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2:65-6.
7. 서재석, 이경훈. 느릅나무 달인 물 복용 후 발생한 급성 간염과 급성신부전 1예. 北醫大論文集. 2000;24(2):198.
8. 허준 지음.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동의보감. 동의보감출판사. 2006:488.
9.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2004:446.
10. 김영완, 백승민, 박정환, 문수정, 이상훈, 최선미. 治病儀禮로 전승된 한국고유 擦法사용과 실태양상 - 잔밥먹이기를 중심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18(3):82.